



Global Partners. 이 영대, 전 애림 선교사 (Brazil).

19년 10월

미주본부 714-774-9191, 파송 교회 714-772-7777

Brasil:11-55-11-3362-8590, 9-7394-3534. E-mail: ydleeabrako@gmail.com.

‘마라나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장소, 그 날을 성경과 유대인의 ‘탈무드’로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탈무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한 아빕월 (출 13:4), 오늘의 3~4월에 예수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서 매년 부활절이 다가오면 ‘행어나 예수님께서 오시려나’ 기다려지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으며, 또한 재림하실 장소가 감람산으로 추측해 보기도 한다.

성경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속 14:4, 행 1:11)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잘 못하면 저주받을 위험까지 있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큰 소망이기에 그 날을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건축된 Africa 신학교 건물의 교실들을 이용하여 Academia Abrako가 유치원을 비롯한 1학년, 2학년으로 9월 30일(월)부터 개교가 되었습니다. 유치반 14명, 1학년 12명, 2학년 08명이 모집되었습니다. (MK 3명 포함) 교사들을 비롯, 사무원들도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모집을 위하여 현지 방송국에서 매일 3회씩 선전 방송도 하면서 브라질에서 인쇄한 5천장 선전지도 주변 주택가에 배달했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학교 주변이 정부 종합 청사를 비롯하여 각국 대사관 등 사무실로서 주택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7학년 이상의 어린이들로 자랄 때까지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오는 애로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중고 차량 1대를 Gambia에서 구입했습니다. 재학생들이 지혜롭고 달마다 회비를 잘 납부하면서 앞날에 영어 교사들까지 초빙하여 국제학교로 성장하려는 MK 학교로서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MK 본관 공사는 축소 예산을 세우고 재정이 허락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Academia Abrako 개교와 신학교 완공 등을 보살피기 위하여 저는 지난 9월 10일에 현지에 도착하여 10월 19일까지 체류할 예정입니다. 학교 교장, Ivânia 선교사는 지난 3월에 출생한 아기의 예방 접종때문에 12월 17일에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가 도착할 때까지는 Deborah 브라질 선교사가 (Kairos 소속)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학교 공사는 현재 윗층 MK 남자 숙소는 완공단계에 있고, 원편에 있는 여자 숙소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 과정으로 보아 11월말로 완공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녀 MK 방들에 침대, 책상, 걸상을 구비하면 모든 공정이 끝날 것입니다.

우기철, 무더위 저의 여행 일정과 이 모든 일들에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frica 우물 파기 사업을 위하여 남가주 사랑의 교회 '북한 기도회원' 2분이 각각 미화 1,000불씩을 헌금했는데 지금 우기철이어서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지역 중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선정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는 우물이 있으면 교회개척은 70% 이상 성공할 정도로 물이 귀한 곳인데 현지 교회가 보다 많이 개척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질병으로 Africa MK 학교 교장을 사임한 Simone 선교사 후임에 Ivânia 선교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브라질 Kairos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지난 10 여년간 Bissau에서 학교장으로 사역한 경험이 많은 분 (남편은 브라질 목사로 다년간 목회 경험)입니다. 이들의 생계비를 L.A.에 있는 G.C.C.I. 교회와 상파울 인근의 Paulinia시에 있는 현지 교회가 이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Africa 신학교에 도서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어를 비롯하여 영어, 등 여유있는 책들이 있으면 연락주시는대로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 도서실로 신학생들이 재학기간 중에 배우지 못한 실력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사랑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각 교실 창문의 커튼을 제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우선 아래층 5개 교실을 비롯한 교장실, 교무실 등을 위하여 50 미터 천을 구입하여 만들었는데 커튼 가게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재정이 지출되었습니다.

Africa 신학교 강의를 위하여 9월 10일에 브라질에서 박동주 선교사가 Bissau에 도착하여 3주간 신학교 강의를 하며, 한의사인 그이기에 침술로 현지인들을 비롯한 신학교 학부형들을 진료를 했는데 지난 2월에 미국에서 온 의료팀처럼 많은 현지교회 교우를 비롯하여 불신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써도 복음 전도에 큰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0월 30일에는 브라질에서 Joaquim 목사 (비교 종교학)가 역시 3주간 신학교 강의와 현지 교회에 설교로 사역할 예정입니다.

매년 1회씩 모여 사역 보고, 재정 감사 등 주요한 일들을 결정하던 GP 년차 모임이 중단되고 있어 심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제 본부가 없어지고 한국, 미주, 브라질 3개 본부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되었는데 저는 미주 본부에 소속했기에 년차 모임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오늘까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년차 모임이 순조롭게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다스리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브라질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난항을 겪던 '연금 개혁법'이 드디어 하원에서 통과되어 상원으로 이월되었는데 상원 의장도 통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미화 환율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를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인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현지 교회의 해외 선교도 활성화되면서 한국인들을 비롯한 브라질인들의 삶도 회복되어 한국 등 타지로 재이민을 간 많은 한인들이 브라질로 돌아와 상파울 한인 교회들이 자손 대대로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민족 교회들로 성장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www.abrako.com 참조)

[기도 제목]

- 1)브라질과 아프리카에 기도, 사역, 재정의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 주소서
- 2)운영하는 신학교들을 통하여 많은 목회자, 선교사를 양성하게 하소서.
- 3)Africa 학교장으로 새로 선임된 Ivania 선교사에게 지혜, 능력을 주셔서 운영을 잘 하도록
- 4)브라질 경제가 회복되어 현지 교회의 해외 선교가 활성화되도록
- 5)파송 교회, 후원 교회, 후원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더하게 하소서 (아래 사진 있음)



커튼으로 단장된 1학년 교실



유치반 교실



Academia Abrako 학생들 입구 문



어린이들이 타고 다닐 차량